박해가 살린 교회

(행8:1~3)

1.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박해가 살린 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가 살아났고, 오늘까지 교회 역사가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핍박의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에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로 바뀌게 될 사울이 선봉에 서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핍박하는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잔멸할새'라는 말은 '엘뤼마이네토'라는 헬라어에요.
이 '엘뤼마이네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인 70인 역 성경, 즉 구약성경에서 어떤 상황을 70인 역에서 '엘뤼마이네토'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하는가 하면, 시편 80편 13절에,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잘 가꾸어진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원을 마구 짓밟고 그 포도원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상태를 '엘뤼마이네토'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잔멸한다는 얘기는, 초대교회가 포도원이라면 사울이 멧돼지가 돼서 그 초대교회를 다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것은, 이렇게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사울의 박해에 의해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만약에 이 박해의 사건들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로서 이어져올 수도 없었을지 몰라요, 이건 가정이지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힘을 받아야 교회의 역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이 사울의 멧돼지가 돼서 포도원을 황폐시키는 것과 같은 박해의 역할과 기능이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그렇다면 무엇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놓여 진 상황이 있습니다, 기점에 놓여 있는데, 교회가 교회로서 확장될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조직화될 것이냐 하는 기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확장된다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힘을 받아서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교회 되게 하는 본질이 화석화되어버리고 고사상태에 빠지느냐 하는 기점에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 기점에서 교회의 조직화로 흘러들어가려고 하는 첫 발이 저지되고, 조직화의 과정이 산산조각으로 깨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임이라고 해서 반드시 조직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모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고 교회가 조직이 되어갈 때, 교회는 고사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사울이 선봉장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가해진 박해와 얽혀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집사님을 선출하고 교회가 이제 교회자체를 문제 삼게 되면서, 교회가 교회자체를 문제 삼게 된다는 게 큰일이거든요, 교회의 관심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의 관심이 교회자체

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조직화 현상이고, 그 조직화의 첫 발걸음으로 집사님을 뽑았는데, 이 사건과 이어져서 나타나는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관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구제 봉사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일이 일어나고,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직화의 과정을 가려는 첫 발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는 교회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박해를 가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사울은 택한 자입니다, 이제 바울로 변할 것이에요.
그 사람을 선봉장에 세워서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바울로 변해서 또 교회를 살려요.
교회의 신앙의 내용을 해석하고 체계화시키면서 교회를 살립니다.
참으로 오묘한 섭리 아니에요?

자, 이렇게 조직화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박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심중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관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본다는 겁니다.
집사를 뽑는데, 교회 내의 봉사와 구제에 하나님이 묶어두지를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서 사도들의 제2 제너레이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사역에 전념하다가 결국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고, 빌립 집사가 이방지역에 첫 번째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순교와 선교가 집사님들에게서 일어나면서 이분들에게서 유대민족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에 갇혀있던 복음이 그 한계를 깨고 넘어가면서 온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사님들이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는 조직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뽑았지만, 하나님이 집사님들을 쓰실 때는 사도처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에 의해서 선교의 영역이 확장된 겁니다, 사도들도 못한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지요.
이 점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직에 봉사하도록 집사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꼭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조직화의 시점으로 발을 들여놓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시고 흩어버리십니다.
이것을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박해를 가하시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랬느냐?
여러분, 흩어버림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의 다음 단계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조직화의 가속화입니다.
가속도가 붙으면서 조직화되어 갈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고사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절대로 교회자체가 교회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관심이 되어서 조직화되어갈 때, 교회의 본질은 화석화돼버립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요소가 화석화돼버립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박해가 주어진 것을 기점으로 해서 박해의 before & after를 봅니다.
박해 바로 직전에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이 한꺼번에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만 해도 8000명이죠?
8천 명의 교인을 한 군데 모아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해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질 수밖에 없지요, 8천 명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될 수 있는 일은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실수가 생기지요.
그러니 더 강화할 것입니다, 집사의 수를 늘릴 것이고, 이제 구제를 위해 봉사부가 생기고, 교육부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서가 생겨서 제직회가 결성될 것입니다.
이때 교회 본질이 화석화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헬라파 과부가 매일매일 생계를 위해서 나눠주는 배급을 받지 못해서 불평을 하게 됐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헬라파 과부들의 생계가 교회에서 해결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라는 조직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생계문제가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교회가 조직화되어 가면서 조직의 품에 안깁니다.
조직을 의지합니다, 조직으로부터 소속감을 갖습니다, 조직을 통해서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 조직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나의 identity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신앙의 요체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 교회라는 조직원으로서 마땅히 고백해야 되고 선언해야 되는 조직의 강령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하나의 강령이 되는 거예요, 조직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강령, 그 강령에 동참하겠다는 동의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소속감을 주고, 기댈 수 있는 의지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나타나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기댈 만한 곳이 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실지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의 마음이, 내가 어느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 안정감, 의지처, 사회적으로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다, 집사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identity를 포장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항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박해 전이 이렇게 됩니다.

박해 후는 어떻습니까? 박해가 주어진 after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니라' 단 한 마디 썼어요.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너무 간단

하게 해외토픽 보고하듯이 보고합니다.
그러나 흩어졌다는 그 한 마디 속에 들어있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에요.
생계의 수단이 되는 직장이라든지 일터나 가게라든지 하는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얘깁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향에서 쫓겨난 겁니다, 떠돌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나그네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어디서 자면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당장 의식주의 문제가 코앞에 닥친 거예요.
그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교인이 7천 명 8천 명씩 늘어나고, 교회 안에서 구제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정감과 소속감과 생계가 해결이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쫓겨나고 내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흩어져서 떠돌이가 돼버린 이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고, 아니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거짓말이면 이들은 죽어요.
하나님 한 분 붙잡게 되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섭리적으로 바울이 될 사울을 써서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멧돼지가 포도원을 황폐화시키듯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황폐화시켜버렸습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박해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의지합니다, 교회에 소속감을 갖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의 그 어떤 단체, 어떤 것도 아닌 천국에만 소속감을 갖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 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조직이 된 교회에 안겨서 교회를 믿고 교회에 소속감을 갖고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도 죽고 교인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관이 섭리로써 반영돼서 나타난 게 박해라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시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에도 자기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처로 삼고, 보이지 않는 천국만을 소속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에요.
그러면 이 모임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흩으시고 나니까 결국은 헬라파 과부들이 자신들이 구제에서 누락되었다고 했던 불평이 사치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뿐만 아니라 집 갖고 밭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 전부가 떠돌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을 의지할 수도 밭을 의지할 수도 없고, 가정이 있다고 마음 든든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모인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얼 합니까?
살다보면 자꾸 세상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는 일이 그 안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행사하고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 마음이 켜져 있는 상태를 끄도록 서로 돕는 겁니다.
스위치 끄는 곳이 교회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켜져 있는 마음의 스위치를 끄는 곳이 교회고, 그 끄는 걸 돕도록 세워진 자가 직분자들이지, 구제하고 봉사하고 프로그램 인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다 집사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세상에 대해 마음을 끄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이 켜지는 일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장로님들의 치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세상에 대해 마음이 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마음이 켜지고, 세상의 모든 소속감에 대한 감정을 다 끄고,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 천국에 대한 소속감만 켠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새롭게 살려낸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진 사람들을 세상으로 흩어 보내면,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하고 자기의 삶을 헤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강령이 돼버린 화석화돼버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 속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다 대체되어버리고, 교회의 조직의 강화와 조직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서 모든 교인의 영적 에너지를 다 소모시킨 다음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업하고 직장생활 할 때는 하나님 대신에 사장님, 주님 대신에 손님, 마음의 관심이 다 그리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흩어진 자들이 4절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둘이서 붙잡고 헤쳐 나갈 때 필요한 모든 영적 에너지를 교회조직을 유지 강화시키는 데에 다 소모시켜버렸으니까.
제직들일수록 세상에 나가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전도하는 것 봤어요? 못 봤지요? 여러분!
목사님이 전도하는 것 봤어요? 못 봤지요?
새신자들이 전도해요, 새신자들이.
아직 교회 일에 깊게 연루되지 않은 새신자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새신자에게 감격이 있고, 영적 에너지가 있으니까.
아직 교회에서 그들을 집사로 부장으로 차장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갖고 전도해요.
그런데 집사 되고 부장 되잖아요? 절대 전도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힘이 없어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전도를 할 텐데, 없어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스위치를 끄는 일을 맡아야 되니까 그렇다 칩시다.
장로님들은 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당회 하느라고 정신이 있나요? 교회라는 조직의 이사들이 다들 되었는데요, 이사들이.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일에 다 소모하는데, 거기에 무슨 힘으로 전도를 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사울이 선봉장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주어진 박해가 교회를 살리게 된다는 이 참 뜻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모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를 조직화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조직에 대한 관계가 대체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를 흩으신 그 섭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고, 참 모임으로서의 교회로의 변화가 기적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